

訪日部品開発協力団 派遣

関 庚 燦 / 本会 国際部

I. 派遣の背景・経緯・目的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은 초기공업화 단계에서 日本으로부터 低價의 조립가공제품을 위주로 한 技術導入으로 대일 의존적 생산 및 수출구조로 편성된 결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자제품생산, 특히 部品, 素材部門에서의 과도한 対日依存과 輸出의 歐美地域備重은 対日貿易逆調 累増과 対歐美地域에서의 지속적인 黒字増加를 가져와 결국 통상마찰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관관계에 비추어 韓・日兩國 部品産業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서로 상대방의 部品産業 実態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兩國經濟界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1986년 4월 일본 東京에서 개최된 제 18회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 회의에서 兩側 対表團은 部品協力 Mission 교환에 합의하였다.

올해로서 2회째를 맞이하여 1988년 6월20일부터 25일까지 日本 東京 大阪지역에 우리측 단원 25개사 28명이 파견되었다.

II. 現地活動 狀況

1. '88. 6. 20(월)

11:15-12:55: 서울 김포發/일본成田(나라) 공항着

2. '88. 6. 21(화)

10:00-11:30:(株)日立(히다찌)製作所 茂原(모바라)工場견학 및 간담회(主要生産品目 CDP,CPT 등)

16:30-17:30:日本電子機械工業会(EIAJ) 訪問

○장소:同工業会 회의실

○참석자:-한국측:단원 전원

-일본측:부품부장 西光雄 외 2명

가. 일본측 보고:「일본전자공업의 현황과 전망」 브리핑(부품부장 西氏)

나. 간담내용

Q:우리나라의 部品産業이 취약한 이유의 약 50%는 일본의 核心技術移轉의 忌避가 아닌가 생각한다(웃음) 이와 같은 Mission이 좀더 일찌기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A:貴국이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가져가도 기술을 소화하는 기술자가 없다. 부품자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素材 및 機械도 level-up해야한다. 기술을 가르쳐 주고 배우고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兩國 기업간의 良好한 人間關係가 무엇보다도 우선이 된다. 기술은 나날이 발전해 나간다. 既

存의 기술을 체질화시키는 동안에 신기술은 나온다.
 體質化와 新技術開發을 並行해 나가야 한다.

Q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구투자개발 비율은?

A : 매출고에 대한 투자액이 문제가 아니라 연구
 과제 설정과 관리가 중요하다. 덧붙여 말한다면
 한국처럼 대기업이라해서 모든 제품을 다 만드는 것
 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제
 품이 特化되는 것이 더욱 효율이 있다고 생각한다.

Q : 일본이 円高 이후 한국과의 자본협력, 기술협
 력 등에 전보다 더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므
 로 兩國間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日本電子機械
 工業會, 韓國電子工業振興會의 兩協會 회원사끼리
 정기적인 교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해 갈 의향은 없
 는지?

A : 한국측과의 협력에 장애가 되는 것은 窓口의
 다양화이다. 한편, 한일 양국 기업간에는 많은
 제휴관계가 있으며, 그것들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힘들다. 그리고, 한국기업이 일본기업과 제휴해서
 성공하려면, 우선 협력해서 성공한 업체의 事例를
 조사하고, 그 업체로부터의 소개를 받아라. 이것이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다. 그런데 그것은 信賴를 바
 탕으로한 人間關係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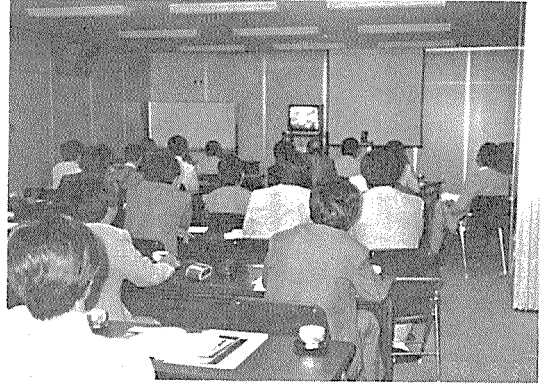
나. 소감

EIAJ의 부품부장 西氏는 우리측의 질문에 대한
 답변마다 누누히 信賴, 人間關係를 강조했다. 逆으
 로, 우리가 그간에 일본과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不
 信의 이미지가 너무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어쨌든 우리가 일본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상호 빈번한 교류, 한국인 특유의 早急性
 을 버리고, 충분한 조사와 검토, 아울러 신뢰를 바
 탕으로 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본다.

3. '88. 6. 22(수)

10:00-12:00 : TDK(株), 成田(나리타) 工
 場견학 및 간담회(주요 생산
 품목 : 자기Tape, Ferrite -
 Magnet, 전자부품 등)

14:00-18:00 : 不二(후지)마이크로(株)本社



工場견학 및 간담회(주요 생
 산품목 : 모터)

4. '88. 6. 23(목)

09:30-10:30 : 세미나

주제 : 円高 이후의 일본경제

연사 : 町田洋次(일본장기신용은행 조사 그룹
 부장)

장소 : 新橋才一호텔 天平룸

가. 요지

일본경제가 円高 현상을 무난히 극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円高가 돌발적으로 日本의 환율제도가 고정
 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바뀐에 따라 꾸준한 상승
 세를 보여 왔기 때문에 비록 1971년(당시 1달러당
 360円) 이후 3번의 波高('72년, '77년, '85년)는 겪
 었지만 정부의 정책, 기업의 円高對策 등이 円高를
 충분히 활용하여 국민경제의 체질을 강화시켰기 때
 문이다. 앞으로 일본경제는 100円시대에도 살아 남
 을 수 있는 餘力を 갖추고 있다.

한편, 円高 克服의 근인으로서 다음 여섯가지
 로 볼 수 있다. 첫째가 생산혁명이다. 제1차 오일
 쇼크 이후 공장의 無人化를 목표로 본격적인 FA化
 를 추진했다. 둘째가 合理化이다. 즉 既存공장의統
 閉合내지는 集中化이다. 세째가 수입의 증대, 네째
 가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다섯째가 내수확대정책,
 여섯째가 제품의 고급화, 고부가가치화 등으로 볼
 수 있겠다.

나. 소감

세미나의 테마 선정과 내용 및 간담은 원화 절상으로 기업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기업에게 매우 유익한 것으로 앙케트조사 결과 평가되었음.

15:00-18:00: 東京発/大阪着

5. '88. 6. 24(금)

10:00-12:00: (株)村田(무라타)製作所 八日市事業所 견학 및 간담회
(주요생산품목: 세라믹)

16:00-16:50: (株)星電(호시덴)化成 견학 및 간담(주요생산품목: 플라스틱 성형)

17:00-17:50: 星電子工業(株) 견학 및 간담
(주요생산품목: LCD)

6. '88. 6. 25(土)

16:00-18:30: 大阪発/서울 김포着

Ⅲ. 앙케이트 調査概要(요약 발췌)

◆ 참고사항 ◆

- 업체수 및 인원: 25개사 28명 (중소기업이 80%)
- 직종별: 임원(11명), 기술직(11명), 관리직(6명)
- 연령분포: 20대(6명), 30대(10명), 40대(10명) 50대이상(2명)

-해외여행경험: 7명(25%)

-외국어가능자: 6명(21%)

- (1) 귀사는 현재 일본과의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회답 24개사중 「수출」만이 5개사, 「수입」만이 7개사, 「수출입」모두가 2개사, 「거래관계없음」이 2개사

- (2) 금회의 Mission에 참가하게 된 동기, 목적은?
-회답 24개사중 「생산성 향상을 FA」가 6건, 「시장 및 기술정보」가 5건, 「엔고에 따른 日企業

대응전략」이 4건, 「관련 메이커와의 협력」이 4건, 「전문 확대」가 3건, 「거래선 모색」이 1건 등.

(3) 공장방문에 임하는 일본 측의 자세는?

-회답 24개사중 「진지했다」가 6개사, 「보통이다」가 14개사, 「형식적이다」가 4개사

(4) 만일 한일 양국간 부품산업협력추진에 장애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

-회답 24개사중 「정보부재」가 12건, 「일본의 적극성 결여」가 11건, 「기술수준의 차」가 7건.

(5) 현재 일본을 포함해서 해외에서의 부품개발 및 생산계획 유무는?

-회답 24개사중 「있다」가 7개사로 그 이유로서 현지생산을 통한 경쟁력 향상, 통상마찰 대처 등이고 「없다」가 16개사로서 그 이유로는 기술자본부족이 대부분임, 그의 「검토해 보겠다」가 1개사.

(6) 금회의 Mission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장점: 회답 15개사중 자동화설비, 円高 타개의 현장확인이 유익했다가 8개사, 그의 의견을 종합하면 일본의 전자산업현황 및 일본사회를 이해하는데 좋은 일정이었다.

-단점: 회답 11개사중 공장이 대기업에 편중되었다가 4개사, 방문공장에 대한 事前情報가 미흡했다가 3개사, 무리한 일정이었다가 2개사, 그의 의견으로서 전체적인 현황과약에 그쳤다가 1개사, 우리측 단원의 구성, 일본에 대한 이해도 차이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에는 비효율적이었다가 1개사 등.

Ⅳ. 綜合意見(앙케이트 調査分析)

-일본 전자부품업계의 현황, 자동화설비 및 円高 극복의 현장확인이라는 점에서 의도한 바의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평가됨.

-회사의 규모 내지는 품목별로 구분하여 단원을 구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사료됨.

-대부분의 일본업체가 공장방문시 협조적이고 우호적이었음.

-단원들중에는 일부 핵심공정에 대한 공장방문

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감을 표시하나 이는 한일간의 꾸준한 교류증대, 기술축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일본과의 비즈니스를 통해 극복될 것이라 예견됨.

-방문공장 선정은 일정 및 지역의 제한성, 우리측 단원의 방문희망공장은 다양화로 다소 애로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65%가 단원들의 요구에 부합되었음.

-우리측 단원은 해외여행 초행자가 21명(75%) 일본어 구사 불가능자가 22명(79%)인바, Mission을 통해 일본에 대한 관심고조, 업무기여의 향상 등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수를 통해 중소기업의 대일전담요원의 확보가 시

급히 요구됨)

-양케이트 결과 향후 일본에서 同Mission이 訪韓하였을 경우 우리측 단원의 45%가 공장방문을 허용한다고 나타났고, 금후 일본과의 합작투자, 기술제휴 가능성에 대해서는 7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本회의 회원업체에 대한 対日 지원사업으로는 응답자의 73%가 對韓합작투자, 기술제휴 희망업체의 list-up 등 정보지원을 요구했음. 이러한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의 협력증진, 회원업체에 대한 정보지원, 한일양국기업에 대하여 實益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본회와 외국관련기관과의 교류를 적극 수행해야 할 시기라고 봄.

P. 61에서 계속

10. 増田祐司, 米国の知的所有權戰略と 通商戰略, ユンピュトピア, 1987. 9. pp. 98-101.
11. 増田祐司, 先端技術開發の 國際競争と 基本技術の特許戰略, ユンピュトピア, 1987. 11, pp. 142-145.
12. 知的所有權を 考える, ユンピュトピア, 1988. 1.
13. 創造的 知的活動への 評價, ユンピュトピア, 1988. 1.
14. 通信政策局 國際企劃課, 貿易障壁に 関する USTR 報告書について, 電気通信時報, 1988. 3, pp. 22-27.
15. Greguras, M. G.,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the USA, Information Age, Vol. 9, No. 4, Butterworth & Company Ltd., 1988. 10. 韓国電子通信研究所, Vol. 8, No. 4, 1987. 1.
4. 韓国經濟新聞社, 公訴權審査の 積滞と 深化, 韓国經濟新聞, 1988. 4. 24.
5. 佐藤佳男, 日米貿易個別事例, 月刊貿易と 産業, 1987. 8, pp. 32-35.
6. 名和小太郎, 知的所有權と 技術標準, 電気通信時報, 1987. 9, pp. 2-7.
7. 坂本栄, ハイテク 産業は 安全保障に 直結, 世界週報, 1987. 2. 24, pp. 24-29.
8. 福間幸, 日米ハイテク競争, ユンピュトピア, 1987. 11. pp. 120-121.
9. 増田祐司, 知的所有權, ユンピュトピア, 1987. 12, pp. 20-37.

